



Received: 2023/08/11
Revised: 2023/08/24
Accepted: 2023/09/19
Published: 2023/09/30

***Corresponding Author:**

Joomee Park

Division of Naval Officer Science,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Maritime University Road 91, Mokpo-si,
Jeonranam-do, Republic of Korea
Tel: +82-61-240-7154
Fax: +82-61-240-7127
E-mail: parkjulie0@naver.com

정유재란 발발 전·후 한산도 수군의 거제도 전진배치 전략 이견 재조명

Reevaluation of Differences in the Forward Deployment Strategy of the Hansando Navy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the Jeongyujearan

고광섭¹, 박주미^{2*}

¹해군사관학교 명예교수

²목포해양대학교 해군사관학부 교수

Kwang-Soob Ko¹, Joomee Park^{2*}

¹Honorary Professor, Republic of Korea Naval Academy

²Professor, Division of Naval Officer Science,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Abstract

정유재란 발발 초기 왜군의 침공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 조정은 통제사 이순신의 탄핵을 논의했다. 조정은 적의 침공에 대비해 한산도 주둔 조선 수군의 거제도 전진 배치를 명하였으나 이순신이 자의적 판단으로 이행치 않아 결국 왜군이 들어왔다고 그를 비난했다. 이순신의 탄핵 사유 중 가장 큰 죄는 군 지휘관으로서 적시에 적을 막지 못한데에 대한 지휘 책임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유재란 발발 전 '선조와 이순신의 한산도 주둔 조선 수군의 거제도 전진 배치'에 대한 상반된 전략을 재조명하였다. 연구 결과, 정유재란 발발 후 이순신 탄핵 사유의 기저에는 정유재란 발발 전·후 한산도 수군의 거제도 전진 배치 전략에 대한 조정과 통제사 이순신 간의 군사전략에 대한 이견이 자리잡고 있었다.

Right after the Second Invasion of the Japanese Troop (1597~1598) known as the Jeongyujearan after its first invasion of Joseon [Korea] in 1592, the Joseon government discussed the impeachment of Admiral Yi Sun-sin. This was because Admiral Yi Sun-sin did not carry out the instruction, which the Joseon government had ordered to pre-position the Joseon Navy's forces on Geoje Island to prepare for the enemy's invasion. The prevailing view is that the biggest sin of Yi Sun-sin's impeachment is his command responsibility for failing to stop the enemy in a timely manner as a military commander. Therefore this study reevaluated the contrasting strategies,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the Jeongyujearan.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regarding the reasons for Admiral Yi Sun-sin's impeachment are as follows. That was a strategic disagreemen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Admiral Yi Sun-sin regarding the pre-positioning of the Joseon Navy's forces on Geoje Island.

Keywords

정유재란(Jeongyujearan),
이순신 탄핵(Admiral Yi Sun-sin's Impeachment),
한산도진(Hansan Island Naval Base),
거제도 전진배치 전략(The Forward Deployment Strategy of Geoje Island)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명나라와 일본 간의 지루한 강화협상이 실패로 돌아가자 1597년 1월 12일 일본군은 적장 가토 기요마사의 지휘로 부산 해역을 침공하고 일본군의 거점지역으로 상륙했다. 임진년(1592년) 4월 13일 불법으로 조선을 침공한 이래 2차 불법 침공을 감행하면서 임진왜란 7년 기간 중 가장 혹독한 정유재란이 시작되었다.

조선 정부는 명일 강화협상 막바지 시기이던 1596년 동계절부터 왜군의 재침 가능성을 인식하고 나름대로 방책을 서둘렀으나 임진년 이후 피폐해진 인적·물적 손실이 컸고 백성들 또한 오랜 전쟁에 시달리며 누적된 피로감으로 전의를 상실한 상태여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는 못했다. 더군다나 이 시기는 1594년 치러진 장문포 수륙합동 작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선 정부에서는 총사령관격인 윤두수 체찰사와 도원수 권율을 경질하는 등 군 수뇌부의 문책으로 군령 및 군정 수행 상황이 어수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조는 이원익을 4도 체찰사로 임명해 전장으로 긴급 투입해 국왕을 대신해 군령과 군정을 총괄하도록 했다. 구원투수격으로 남쪽으로 내려간 체찰사 이원익은 지방 행정 기관은 물론

육군 및 수군 부대를 두루 살피며 국왕으로부터 부여받은 군령 및 군정권자로서 나름대로 일본군의 2차 침공에 대비했다.

특히 일본군 불법 침공 시 첫 관문인 부산 해역 방비를 위해 한산도 통제영에 주둔하고 있는 통제사 이순신 휘하의 수군 기지를 직접 살피고, 통제사 이순신과의 긴밀한 교류를 하는 등 적의 침공을 예견하고 준비를 했지만 적이 1597년 1월 12일 부산 해역을 침공해 상륙하기 전 사전에 막아내지는 못했다.

선조는 적 침공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통제사 이순신을 파면하고 그로 하여금 백의종군토록 했다. 이순신의 파면 사유 중 가장 큰 죄는 제때 적을 막지 못한 지휘 책임이었지만, 체포 당시의 탄핵 사유에는 임진년부터 누적된 선조의 이순신에 대한 불만 요소까지 포함되었다.

이순신이 선조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례에 관해서는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 등 1차 기록을 근거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정유재란 발발 전 적 침공을 막기 위해 출전하라는 명을 이행하지 않은 것. 둘째, 1597년 8월 3일 통제사로 재임명된 후 “수군이 약하면 폐지하고 육전을 도우라”는 선조의 명령에, 수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2척의 전선으로 죽을 힘을 다해 싸우겠다고 답변한 것. 셋째, 한산도 수군 기지의 거제도 이진 요구에 대한 거부이다.

이 중 첫 번째는 2021년·2022년 고광섭의 연구[1-2]에 따라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두 번째 사례는 이분의 『이충무공행록』을 근거로 역사적 사실로 판단할 수 있다[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 번째 사례, 즉 선조를 포함한 전쟁 지휘부가 정유재란 발발 초 왜군의 갑작스런 불법 침공 소식을 접한 후, 이순신 탄핵을 논의하던 초기 과정에서 밝혀진 정유재란 발발 전 선조의 한산도 수군 기지의 거제도 이진 요구를 통제사 이순신이 거부한 사실에 주목하였다.

오늘날까지 이순신 탄핵 사유로 전해지는 이순신의 죄는 『선조수정실록』에 기록된 이순신을 파면하고 구금한 상태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논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4]. 그러나 본 연구는 기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순신 사후 아직까지 이순신의 탄핵 사유로 주목받지 못했던 ‘이순신의 한산도 수군 기지 거제도 이진 요구 거부’와 이순신의 탄핵 죄의 상관성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고 연구를 추진했다.

2. 정유재란 발발 전 민심과 수군 전략

2.1 정유재란 발발 전 민심

지루한 명일 강화회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재침 징후가 짙어졌다. 특히 1596년 9월 2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사카성에서 명의 책봉사를 접견하였으나 강화회담 결렬로 책봉사를 추방하고 조선을 재침하겠다고 공언했다. 선조는 그 이전 해인 1595년 8월 1일 4도 체찰사 임무를 위해 남쪽으로 내려가 왜군 침공에 대비하여 민정과 군정 업무를 살피던 이원익을 조정으로 귀환시켜 그동안의 임무 수행 결과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이원익은 전년도 8월 1일 임무 수행 이래 충청도, 경상도 및 전라도 지역에 분포된 육군진과 수군진을 두루 살피고 전쟁 준비를 해 온 군사 업무와 민정 시찰 결과를 선조 면전에서 보고했다[5].

이날 이원익의 보고는 충격적이었다. 1년 이상 적의 동태, 전쟁 준비 및 민심 등 전황 전반에 대하여 이원익은 적과 맞서 싸우는 경우 중과부적이라고 솔직하게 현황을 보고했다. 특히 변방의 군무에 있어서는 대충을 통솔할 재능을 가진 장수가 별로 없고, 지친 군사들의 탄식만이 있어 아무리 격려하고 타일러도 군심(軍心)이 점차 흩어져서 모든 일을 소홀히 하고 있어 매우, 매우 염려스럽다고 했다. 또 이날 보고에는 정유재란 전 조선 수군의 상황과 선조가 이순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다음은 이원익의 민정 시찰 종합 보고 중에서 수군의 상황이 증점적으로 나온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선조: “연해지역의 상황은 어떤가?”

이원익: “매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그다지도 당황하느냐고 물었더니 ‘수군(水軍)들이 모두 죽어버려 적세(賊勢)가 두려워서 그런다.’ 하였습니다.”

선조: “수군들이 많이 죽었다고 말한 것은 굶어 죽었다는 말인가?”

이원익: “지난해(1594년 1595년 흉년 및 역병 극심) 이후로 굶어 죽은 자는 없고 이전 흉년 때에 많이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변에는 능로(能槽) 배를 익숙하게 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중략)

선조: “통제사 이순신은 힘써 종사하고 있던가?”

이원익: “그 사람은 우둔하지 않고 힘써 종사하고 있을뿐 더러 한산도(閑山島)에는 군량이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선조: “당초에는 왜적들을 부지런히 사로잡았다던데, 그 후에 들으니 태만한 마음이 없지 않다 하였다. 사람 됨됨이가 어떠하던가?”

이원익: “소신의 소견으로는 많은 장수들 가운데 가장 쟁쟁한 자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동안 처음과는 달리 태만하였다는 일에 대해서는 신이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

선조: “절제(節制)할 만한 재질이 있던가?”

이원익: “소신의 생각으로는 경상도에 있는 많은 장수들 가운데 순신이 제일 훌륭하다고 여겨집니다.”

위 내용은 1594년 역병과 흉작으로 군사는 물론 격군으로 징집할 사람이 없을 만큼 조선 수군의 피해가 심각해 적 침공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민심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2.2 정유재란 발발 전 수군 전략

이원익은 1596년 10월 5일 국왕에게 대면 보고에 앞서 1596년 1월 24일에는 왜군의 만행과 향후 왜군의 침공에 대비한 방어계획과 이순신에게 내린 지시 사항들을 장계로 보고했는데 눈에 띄는 대목은 향후 적의 침공에 대비해 이원익과 이순신이 대책을 논의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한산도 수군을 거제도로 전진 배치하고자 했던 이원익의 장계 내용이다[6].

“거제(巨濟)의 왜적은 이미 철수해 갔으나, 가덕(加德) 등에 있는 적들은 근일의 정황을 보면 다 철수할 기미가 전연 없습니다. 만일 다시 바다를 건너 서쪽으로 오는 적의 배가 있다면 수군이 반드시 거제에 자리를 잡고 있는 연 후에야 나아가 바닷길을 막기에 편리할 것입니다.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의 보고대로 편의에 따라 조치하여 거제에 주둔하도록 분부하였는데, 갑자기 수군을 동원하자면 혹, 소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니, 각별히 준비하고 잘 처리하여 보고 듣는 사람들을 놀라지 않게 할 일도 신신당부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이원익이 남으로 내려간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이원익이 한산도에서 장기 주둔하고 있는 수군을 거제도로 전진 배치하여 훗날 왜군의 침공을 선제적으로 막도록 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었고 이를 통제사에게 지시했음을 알 수 있다[7].

1596년 11월에 접어들면서 왜군 침공 소식이 날로 잦아들자 조정에서의 대책도 보다 구체화되었다. 선조는 민간의 곡식은 거두어 모아 산성 안에 감추어 두고 청야작전을 하도록 지시했고, 해상에서는 수군을 거제도로 전진 배치하는 전략이 논의되었다. 김응남과 윤두수 등 조정의 대신들은 거제도 방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적이 부산으로 들어와 거제도를 치는 경우 한산도에 있는 수군 진영이 거제도로부터 떨어져 있으므로 거제도를 방어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전략적 고려를 한 것이다. 그래서 비록 조선 수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산도는 전선을 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병력에 여유가 있다면 거제도도 전진 배치하여 적이 오는 길목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8].

조선 정부는 한산도 수군의 거제도 전진 배치에 대해 11월 1일에 이어 11월 5일에도 논의했다. 왜군의 침공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시기에 통제사 이순신이 지휘하고 있는 한산도의 수군을 거제도도 전진 배치하여 바다에서 적을 막는 일이 어떤 전략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비변사에서 선조에게 보고하는 『선조실록』 1596년 11월 5일 기록이다[9].

“11월 1일의 조강(朝講) 때에 윤근수(尹根壽)가 아뢴 장문포(長門浦)를 방수(防守)하는 일에 대하여, 위에서 ‘우상(右相)과 비변사가 함께 의논하여 처리하라’고 전교하셨습시다. 한산도(閑山島)는 1만 척의 배를 감출 수 있고 출입하며 방어하기에도 편리하므로 끝내 버릴 수 없는 땅이니, 이것이 한산에서 철수하여 거제(巨濟)로 옮기지 않았던 까닭입니다. 군사를 나누어서 지키려 하면, 거제의 적은 물러가더라도 안골(安骨)·가덕(加德)의 적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왕래가 무상하므로 뜻밖의 근심이 반드시 없으리라고 보장하기 어려우니, 이것이 외로운 군사를 갑자기 들여보낼 수 없는 까닭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1596년 1월 24일 이원

익이 한산도 주둔 수군을 거제도로 전진 배치하겠다고 보고했으나 10개월이 지나도록 추진되지 않은 것은 한산도가 수군 기지로서 보안성이 양호한 이유도 있지만, 두 군데로 분산 배치할 만큼 수군 병력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제도에 수군을 배치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논의된 추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조정은 한산도 수군을 거제도로 전진 배치해야 한다는 의지가 매우 강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11월 5일 이어지는 어전회의의 추가 내용이다.

“그러나 부산으로 오는 적의 길을 막으려면 거제를 잃어서는 안 되는데 적이 물러간 지 한 해가 지나도록 아직 응거하여 지키는 것을 구획(區劃)하지 않았으니, 이는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도체찰사가 이미 분부하여 올 가을부터 백성에게 경작하게 하고 또 이순신(李舜臣)을 시켜 진주(進駐)하는 것이 온편한지를 살펴서 회보(回報)하게 하였다 하니, 조정에서도 통제사(統制使)에게 하유(下諭)하여 들어가 지키는 방책을 여러 가지로 계획하여 상세히 아뢰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상기 11월 5일 기록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당시의 전황을 인지할 수 있다. 첫째로 1594년 겨울 거제도 장문포 해전 후 거제도에 주둔하고 있었던 왜군이 1595년 철수했음에도 1년이 다 지나도록 거제도에 아군을 상주시키지 않았다는 점, 둘째로 이원익이 1596년 초 한산도 수군의 거제도 전진 배치 건의에 대해 무려 10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는 점, 셋째로 한산도 수군의 거제도 전진 배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한산도 포구의 양호한 보안성과 한산도 주둔 수군의 병력이 빈약했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상 문제가 있더라도 적 침공에 대비해 그 정도의 문제는 극복하고 군사를 거제도로 전진 배치하는 것이야말로 적이 임진년 이후 전략적 거점으로 주둔했던 거제도를 지키고 부산으로 침공하는 적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 조정의 전략적 시각이었다. 따라서 대신들은 선조로 하여금 1596년 말이 다 되도록 한산도 수군을 거제도로 이동시키지 않고 있는 통제사 이순신에게 부대 이동 지시를 내리도록 건의했음을 알 수 있다.

3. 정유재란 발발 후 이순신 탄핵 쟁점

3.1 정유재란 초기 왜군 실제 침공로 및 첩보에 의한 예상 침공로

이중 첩자 요시라가 1597년 1월 13일 의령에서 경상 우병사 김응서와 황신을 만나 왜군이 대마도에 머무르면서 도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 가토 기요마사는 침공군을 이끌고 이미 부산해역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정유재란 전후 조선의 장수와 고급 관리들을 만나 수시로 적의 정보를 제공해주던 요시라가 조선에 건넨 적의 침공 날짜는 거짓으로 드러났다[10].

도체찰사 이원익에 의해 가토군이 1월 13일 다대포에 도착했고[11], 이보다 앞서 적선 200여 척도 이미 진입했다는 소식이 최초로 1월 21일 조정에 알려졌다. 다음 날에는 황신에게서 입수한 가토군의 침공 사실에는 적의 전선 수백 척이 서생포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요시라가 첩보를 주었는데도 가토군을 미리치지 않았다고 이간질하는 고니시의 전언까지 전해졌다. 앞서 언급했지만 고니시의 말과는 다르게 요시라는 조선에 가토 침공에 대한 정확한 시기를 알려주지 않았음이 저자의 연구 결과로 확인된 바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왜군의 군사 이동에 대한 소식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김응서의 장계 내용이다[12].

“12일에 풍세가 매우 순조로워서 가토 관하의 왜선 150여 척이 서생포로 나왔고, 가토가 거느린 관하의 왜선 130여 척은 출발한 뒤에 풍세가 동북에서 불어 거제도로 가지 못하고 가덕도에 유박하고, 14일에 다대포로 향하여 진을 친 것을 보았다.”



Fig. 1. 가토군의 추정 항로

왜군의 진격로에 대한 구체적인 사료는 상기의 실록 내용 외에는 찾기 어렵다. Fig. 1은 『선조실록』을 근거로 가토군의 진격로를 추정해 그린 지도이다. 요약하면 1597년 1월 12일 가토군 선발대가 서생포로 이동했고, 13일에는 가토가 직접 지휘하는 침공군이 거제도에서 지척인 가덕도를 거쳐 14일 다대포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3.2 요시라가 조선에 제공한 가토군의 침공 예상로

정유재란 초기 경상도 병사 김응서는 1월 11일 요시라를 만나 전해들은 가토군의 침공로를 조정에 보고하였다[13].

이 첩보에 따르면 가토군이 1월 4일 군사 7천 명을 대마도에 대기시켜 놓고 해상상태가 양호하면 바다를 건널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요시라는 김응서에게 가토군의 예상 침공로까지 알렸다. 예상 침공로는 두 가지로 첫째, 항해 중 동풍이 강하게 불면 거제도도 항할 것이고 둘째, 항해 중 약한 동풍이 불면 기장이나 서생포로 항할 것이라고 했다. 더욱이 요시라는 김응서를 통해 조선 수군이 두 개의 침공로에 대비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하나는 우선 거제도 항로를 예상해 거제도에 수군을 이진시켜 가토군의 침공을 엿보아 치는 계획이었고, 다른 하나는 기장이나 서생포 항로를 대비해 전함 50척을 기장으로 이동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임진왜란 시기 고니시의 하수인으로 이중첩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요시라가 조선에 전한 첩보 중 가토군의 침공 날짜 등 상당 부분이 저자의 선행 연구 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바 있지만[10], 요시라가 전해 준 가토군 침공 예상로는 가토군 침공 후 행적을 토대로 작성한 추정 항로 Fig. 1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3.3 이순신 탄핵 논쟁

먼저 이순신의 한산도 수군 거제도 전진 배치 불이행에 대한 대신들의 시각이다. 충격적인 왜군의 침공 소식을 접한 조정에서는 이순신에 대한 원망과 책임론이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1월 23일부터 조정에서는 이순신의 책임론이 거론되었다. 선조는 고니시가 손바닥 보듯 상세한 정보를 주었는데도 가토를 막지 못했다고 대신들을 질책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가토군의

침공로가 고니시의 부하 요시라가 전해 준 예상로와 유사했던 데서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이순신에 대한 비난은 극에 달했다. 선조와 대신들은 이순신이 거제도로 수군을 옮기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했고, 결과적으로 도해 차단에 실패했다고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이순신의 탄핵을 논의했다. 판중추부사 윤두수는 이순신이 조정의 명령을 거부하고 전투 의지가 없어 한산도에만 진을 치고 있었기에 적을 치지 못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14].

이날 이순신이 수군 기지를 거제도로 옮기지 않아 결국 적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에 무게가 실리는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유성룡이 선조에게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제에 들어가 지켰다면 영등·김해의 적이 반드시 두려워했을 것인데, 오랫동안 한산도에 머물면서 별로 하는 일이 없었고 이번 바닷길도 역시 요격하지 않았으니 어찌 죄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장수도 뜻이 차고 기가 퍼지면 교만하고 게을러진다고 하며, 무장은 기가 교만해지면 쓸 수가 없다.”

이순신의 후견인 역할을 해온 유성룡마저도 이순신을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스스로 이순신을 전라좌수사로 천거할 만큼 이순신의 후견인 역할을 해왔던 유성룡도 선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산도 수군 기지의 거제도 이진 불이행과 제때 적을 막지 못한 이순신을 더 이상 두둔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식되는 대목이다. 다음은 이정형의 보고다[15].

“거제도에 들어가 지키면 좋은 줄은 알지만, 한산도는 선박을 감출 수 있는 데다가 적들이 천심을 알 수 없고, 거제도는 그 만이 비록 넓기는 하나 선박을 감출 곳이 없을 뿐더러 또 건너편 안골의 적과 상대하고 있어 들어가 지키기에는 어렵다’고 했으니, 그 말이 합당한 듯합니다.”

이에 대해 선조가 하문하기를, “들어가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했는데, 경의 생각은 어떤가?” 하자, 이정형이 아뢰기를 “신 역시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렇습니다.”

위의 선조와 이정형의 대화를 통해 통제사 이순신이 정유재란 발발 전 한산도 수군의 거제도 이진에 대해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조정의 거제도 이진 요구를 거

절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통제사 이순신에 대한 선조의 시각이다. 이 상의 사료 요약 기록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정유재란 발발 직후 대신들은 통제사 이순신이 사전에 가토군을 치지 못한 요인을 한산도 수군의 거제도 전진 배치 불 이행과 전투의지 부족으로 보았다. 이순신 탄핵 초기 이틀간의 회의에서 선조는 통제사 이순신이 조정을 기망했다고 비난하며 이순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심정을 굳혔다[16]. 선조가 이순신을 비난하는 다음의 두 기록을 살펴보자[17].

“우리나라가 믿는 바는 오직 수군뿐인데, 통제사 이순신(李舜臣)은 나라의 중한 임무를 맡고서 마음대로 기망(欺罔)하여 적을 토벌하지 않아 청정으로 하여금 안연히 바다를 건너게 하였으니, 잡아다 국문하고 용서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바야흐로 적과 진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우선 공을 세워 효과를 거두게 해야 한다.”

(我國所恃，唯在舟師，而統制使李舜臣，受國重任，唯肆欺罔，縱賊不討)

상기 선조의 발언 내용 중 ‘기망’이라는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기망’이란 정유재란 조정의 요구사항이었던 한산도 수군의 거제도 전진 배치에 대해 이순신이 본인의 의지대로 거제도 이진을 시행하지 않은 점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가토 기요마사[가등청정]의 군대가 아무런 저항 없이 거제도, 가덕도 및 다대포 해역으로 바다를 건너 진입했다는 점을 비난하고 이에 대한 문책을 지시한 것이다.

이순신에 대한 선조의 분노는 정유재란 초기 적의 침공을 막지 못한 탄핵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통제사로서의 군 지휘관의 책임론에 머물지 않고, 정유재란 발발 전 이순신의 행적까지 소환되었음을 다음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순신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겠다. 계미년 이래 사람들이 모두 거짓되다고 하였다. 이번에 비변사가 ‘제장과 수령들이 호령을 듣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비변사가 그들을 옹호해주기 때문이다. 중국 장수들이 못하는 것이 없이 조정을 속이고 있는데, 이런 습성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모두 답습하고 있다. 이순신이 부산 왜영(倭營)을 불태웠다고 조정에 속여 보고하였는데, 영상(領相)이 이 자리에 있지만 반드시 그랬을 이치가 없다. 지

금 비록 그의 손으로 청정의 목을 베어 오더라도 결코 그 죄는 용서해 줄 수 없다.”

(上曰: “舜臣未知其如何人，自癸未年來，人皆謂詐矣。今者備邊司言: ‘諸將不聽號令，守令不聽號令’云者，無他故也，自備邊容護之故也。唐官欺罔朝廷，無不爲之，此習，我國人皆爲薰襲。李舜臣以燒釜營，瞞告于朝廷，領相在此，此必無之理也。今雖手持清賊之頭，斷不可贖其罪矣) ”

4. 이순신 탄핵 분석

4.1 이순신 탄핵 죄 항목과 죄 항목에 대한 해석

이순신의 죄 항목은 아래의 1597년 3월 13일 『선조실록』 기록으로 전해진다.

“이순신(李舜臣)이 조정을 기망(欺罔)한 것은 임금을 무시한 죄이고, 적을 놓아주어 치지 않은 것은 나라를 저버린 죄이며, 심지어 남의 공을 가로채 남을 무함하기까지하며 방자하지 않음이 없는 것은 기탄함이 없는 죄이다.”

(李舜臣欺罔朝廷，無君之罪也；縱賊不討，負國之罪也。

至於奪人之功，陷人於罪，【指以元均年長之子，而小兒冒功爲啓聞。】無非縱恣無忌憚之罪也)

위 내용은 이순신이 이미 체포 및 구금된 상태에서 선조가 대신들에게 징계의 수위를 논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공표한 죄 항목으로 현재까지 전해지는 기록이다.

4.2 기존 연구자의 이순신 죄 항목 해석 출판물 분석

현재까지 알려진 이순신 연구자들의 출판물이나 자료에 명시된 상기 이순신의 죄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은 모두 1597년 3월 13일 『선조실록』 기록을 기반으로, 첫째, 조정을 기망하고 임금을 무시한 죄는 이순신의 부산 왜영 장계 사건, 둘째, 나라를 저버린 죄는 이순신이 제때 왜군을 막지 못한 사건, 셋째, 남의 공을 가로채 죄는 임진년 원균의 전공과 원균 아들에 대한 장계 사건 등으로 정리해 왔다[18-21].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조와 조정 대신 등 조선의 전쟁 지휘부에서는 정유재란 발발 전 해상 전략으로 한산도 수군의 거제도 전진 배치를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고려했다. 또 이순신 탄핵 논의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대신들은 물론 선조는 이순신이 한산도 수군을 거제도로 이진시키지 않은 것을 두고 마음대로 조정을 기망해 이진시키지 않아 사전에 적을 발견치 못하고 결국 적이 안전하게 바다를 건넜다며 격노했음이 확인되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그동안 이순신의 탄핵 사유로 주목받지 못했던 정유재란 발발 전 ‘선조와 이순신의 한산도 주둔 조선 수군의 거제도 전진 배치’에 대한 상반된 전략을 재조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다음은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이다.

첫째, 정유재란 발발 전 조정 대신, 선조 등 전쟁 지휘부의 해양전략은 한산도 주둔 수군을 거제도로 전진 배치하여 도해하는 적을 사전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둘째, 이순신이 전쟁 지휘부의 한산도 수군 거제도 이진 지시에 대해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셋째, 정유재란 발발 후 이순신 탄핵 논의 과정에서 조정에서 제기된 이순신의 한산도 수군 거제도 이진 불이행에 대한 책임론이 가장 큰 쟁점이었으나, 1597년 3월 13일 『선조실록』에 명시된 이순신의 포괄적인 죄 항목에 대한 기존 연구자들의 사례 해석에는 이 사실이 주목받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 결과, 이순신의 탄핵 죄로 명시된 1597년 3월 13일 『선조실록』의 기록은 이미 이순신 탄핵 결정 후 이순신이 한양에 압송된 후의 기록으로 실제로 탄핵이 논의된 시점과는 시기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선조와 대신들이 이순신 탄핵 논의 과정에서 정유재란 발발 전 조정의 핵심 전략이었던 한산도 수군의 거제도로의 전진 배치를 이행치 않아 적의 침공을 대처하지 못했다며 통제사 이순신의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던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정유재란 발발 전·후 한산도 수군의 거제도 전진 배치 전략에 대한 조정과 통제사 이순신 간의 군사전략에 대한 이견은 조정 입장에서 보면 이순신의 조정 기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Ko, K. S. (2021), A Study on Yi Sun-Shin's Willingness to

Follow the Order of King Seonjo to Dispatch the Navy in the Period, Journal of KNST, Vol. 4, No. 1, pp. 1-13.

[2] Ko, K. S. (2022), The Verification Study on Yi Sun-Shin's Refusal of King Seonjo's Dispatch Order, Journal of KNST, Vol. 5, No. 1, pp. 1-8.

[3] Kim, H. G. (2019), The translated Leechoongmugong Haengrok, Gagyanal Publisher, p. 103.

[4]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Seonjosillo (1596-1597), March 3rd, 1597 (<http://sillok.history.go.kr>).

[4]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Seonjosillo (1596-1597), March 3rd, 1597 (<http://sillok.history.go.kr>).

[5]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Seonjosillo (1596-1597), Oct 5th, 1596 (<http://sillok.history.go.kr>).

[6] Lee, W. I. (1995), Janggye written by Lee Won-ik in Ori Teacher's Books (Korean version translated by Kim, D. J.), Yeogang Publisher.

[7] Ko, K. S. & Choi, Y. S. (2021), The unknown Yi Sun-shin by us, Book Korea Publisher, pp. 234-237.

[8]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Seonjosillo (1596-1597), November 1st, 1596 (<http://sillok.history.go.kr>).

[9]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Seonjosillo (1596-1597), November 5th, 1596 (<http://sillok.history.go.kr>).

[10] Ko, K. S. (2022), The Verification Study on Yi Sun-Shin's Refusal of King Seonjo's Dispatch Order, Journal of KNST, Vol. 5, No. 1, pp. 1-8.

[11]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Seonjosillo (1596-1597), January 21st, 1597 (<http://sillok.history.go.kr>).

[12]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Seonjosillo (1596-1597), January 23th, 1597 (<http://sillok.history.go.kr>).

[13]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Seonjosillo (1596-1597), January 19th, 1597 (<http://sillok.history.go.kr>).

[14]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Seonjosillo (1596-1597), January 27th, 1597 (<http://sillok.history.go.kr>).

[15]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Seonjosillo (1596-1597), January 27th, 1597 (<http://sillok.history.go.kr>).

[16]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Seonjosillo (1596-1597), January 27th-28th, 1597 (<http://sillok.history.go.kr>).

[17]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Seonjosillo (1596-1597), January 27th-28th, 1597 (<http://sillok.history.go.kr>).

[18] Jo, S. D. (1986), Chungmugong Yi Sun-shin, Yeongyeong Publisher, p. 271.

- [19] Jang, H. G. (2009), Naval Naval Fleet Commander Yi Sun-shin and Woo Eui-jeong Jeong Tak, Soonchunhyang University Yi Soon-Sin Research Institute, Vol. 11. pp. 18-19.
- [20] Jae, J. M. (2011), Yi Sun-shin (Baek-ujong-gun), Happy Tree, pp. 54-56.
- [21] Choi, Y. S. (2007), A Holy Place of the Nation 'Goha-do', Hoon, pp. 143-145.